

# 풍산가문비나무 (풍산종비)



최 명 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 ▶ 과명 : 소나무과
- ▶ 학명 : *Picea pungsanensis*
- ▶ 한명 : 豊山縱樅
- ▶ 일명 : ほうさんはりもみ

우리 국립산림과학원 부속 홍릉수목원의 침엽수원인 제 5수목원에는 대기오염에 찌들고 더위에 지친 한그루의 풍산가문비나무가 서 있다. 1923년경 일본의 식물학자 Nakai씨와 고(故) 김이만 나무 할아버지께서 함경남도 풍산에서 수집하여 식재되었으니 현재 나이 80세가 넘었으리라고 짐작된다. 현재 수고 12m내외이며 흉고직경은 약 40cm 정도인데 이웃에 자라고 있는 일본이 원산인 칠엽수, 울릉도에서 찾아온 섬잣나무, 그리고 서울이 고향인 서울귀룽나무, 홍릉에서 나서 자라고 있는 벗나무의 위세에 주눅이 들어서 인지 아니면 더위에 못 견뎌서인지 힘을 못쓰고 비실대고 있다. 실제로는 대기오염과 더위에 견디기 어려워서 비실대리라고 보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냥 보기에

애처로워 2002년도에 후계목을 증식시키고자 접수를 채취하여 유전자원부에 보냈더니 담당자분께서 접목 번식을 하여 높이 60cm 정도의 후계목 2본을 2007년도에 보내와 그 주변에 식재하고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홍릉수목원의 자랑을 말할 때 빼 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남한에 단 한그루라고 소개하는 풍산가문비나무가 조금은 안쓰럽기도 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냈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다.

해발 1,400m 이상의 고산에서 자라는데 함경남도의 풍산과 함경북도의 경성에 분포하는 고산성 상록침엽 큰키나무로 수고 20m, 지름 60cm에 달하며 공중습도가 많고 비옥하며 한랭한 곳에서 자생한다.

열매가 달리는 과지에는 털이 없고 황녹색이다. 동아는 털이 없고 수지는 약간 있다. 잎은 침상 사각형이고 길이 12~25mm이며 구부러지고 엷은 도란형이다. 꽃은 자웅일가화로 6월에 핀다. 구과는 난상 타원형으로 길이 55~70mm, 지름 25~35mm이고 실편은 도란형으로 녹색갈색이며 뒷면에 세로로 주름이 있고 10월에 성숙한다. 유사종으로 젊은 가지에 털이 밀생하는 것을 털풍산종비(var. *intercedens* (Nakai) T. Lee) 라고 하며 함북 무산에 난다. 본종은 종비나무에 비해 잎이 길며 실편의 끝이 좁고 약간 둔한 톱니모양을 하며 뒷면에 주름이 지고 광택이 없다.

목재의 재질이 연하고 부드러우며 결이 곧아 뒤틀림이 적어 문틀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되었으며 건축재, 기구재, 약기재, 펄프재, 선박재로 쓰인다.

번식은 일적인 침엽수의 번식법과 마찬가지로 가을에 익은 열매를 채취 정선하여 공기 중에서 보관하다가 파종 1개월 전에 노천매장 하였다가 파종하며 발아 후에 그늘 막을 설치하여 양묘한다. 홍릉에서는 한번도 결실 한 적이 없다고 선배 분들이 말 한다. 그래서 후계목 번식을 위해서는 접목 번식을 하였다. 🌲

